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 분석

장 선 철[†]

건국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Jones와 Chenery의 진로결정 프로파일(CDP)의 세 가지 차원(결정, 편안, 이유 차원)에 대한 군집분석으로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과 각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모집단(전국 142개 대학교 학생 316,795명)에서 다중층화추출법으로 무작위 추출한 20개 대학교 1,798명 학생으로, 진로결정 프로파일(CDP)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K-평균 군집분석, 일원변량분석, Tukey 사후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은 네 개로 나타났다. 각 유형을 특성에 따라 '결정-이상형', '결정-회피형', '미결정-혼돈형', '결정-강박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들과 관련하여 한국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의 특성을 논의한 후, 대학생 진로상담에 던지는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언급하였다.

주요어 : 진로결정, K-평균 군집분석, 진로결정 프로파일

장선철은 건국대학교 강사임.

[†] 교신저자 : 장 선 철, (143-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 건국대학교 교직과
전화 : 011-9973-5478 E-mail : jsc@onnuri.or.kr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 즉 진로 미결정자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그동안 내담자의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에 활용하기 위하여 진로 미결정의 차원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이런 관점에서 진로결정의 차원을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들은 진로 미결정의 네 가지 차원을 밝힌 Osipow, Carney와 Barak(1976)의 견해를 따른다. 이들은 진로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 검사를 실시한 후 요인분석으로 발견한 변인을 미결정의 차원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이 이런 주제로 진로 미결정을 탐색했지만 결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Holland와 Holland(1977)는 진로 미결정 학생을 지금 당장 결정해야하는 압력을 표현하지 않는 집단, 가벼운 수준부터 중간 수준까지의 미성숙성 집단, 중간 수준부터 심각한 수준까지의 미성숙성 집단 등 세 종류의 하위 집단으로 구성된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유형화했다.

Fuqua, Newman 및 Seaworth(1988)는 대학생 349명에게 CDS를 실시하여 미결정의 네 가지 차원, 즉 정보의 필요와 결정을 미루려는 경향, 자신과 다양한 직업들 간의 적합성에 관한 정보의 필요, 흥미의 다양성, 실천에 대한 장애와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을 관련시켰으며, Larson 등(1988)은 미결정 학생을 네 개의 하위집단, 계획이 없는 회피자 집단, 정보를 소유한 결단성 부족 집단, 확신은 있으나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집단, 정보를 소유하지 못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진로 미결정의 차원에 관심을 가졌던 연구자들은 요인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진로 미결정의 기저에 깔려있는 차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런 연구의 결과들이 진로 미결정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집단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다

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진로상담에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진단과 처치를 위한 한 방법으로 탐색해 온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의 대다수가 연구 대상을 진로 미결정자로 국한하고 있어 진로결정과 미결정을 모두 포함한 진로결정 유형화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결정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 중 하나는 진로결정을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상담 및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다.

Fuqua, Blum과 Hartman(1988)은 고등학생을 네 가지 유형, 진로를 결정한 집단, 중간 정도의 미결정/중간 정도의 불안집단, 심각한 미결정/중간 정도의 불안집단, 심각한 미결정/과도한 불안집단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상담 및 교육의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Lucas와 Epperson(1988)은 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을 군집분석하여, 5개의 집단, 행복을 느끼며 일에 적응된 학생, 행복을 느끼며 유희적인 학생, 딜레마에 빠진 학생, 결정하지 못하였고 흥미가 제한된 학생, 불안을 느끼고 목표가 불명확한 학생으로 분류하였다.

Savickas와 Jarjoura(1991)는 16개의 CDS 문항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기초로 선택이 결정된 집단, 지속적인 탐색으로 구체화하는 집단, 광범위한 탐색으로 정교화하는 집단, 비현실적인 집단, 결단성이 부족한 집단이란 5개의 진로결정 유형을 제시했다. Wanberg와 Muchinsky(1992)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정한-편안한, 결정한-염려되는, 결정하지 못한-무관심한, 결정하지 못한-불안한이란 4개의 군집을 찾아내었다. 또한, 15편의 진로 미결정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대상이나 측정 도구 등에 따라 하위 유형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한 Gordon(1998)은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확실히 결정, 어느 정도 결정, 불안정한 결정, 잠정적 미결정, 발달적 미결정, 매우 미결정, 만성적

우유부단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에서는 허지영(1996)이 CDS, CDP, MVS 등의 검사 도구로, 이해성, 홍혜경(1998)이 CDS, CDP로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6가지 유형으로, 김봉환(1997)은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배종훈(2001)이 4 가지 유형을, 이재창 외(2001)가 7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진로결정 유형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진로결정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면서도 간명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에 대해 여러 연구(Callanan & Greenhaus, 1992; Jones, 1989; Newman et al, 1990)는 Jones와 Chenery(1980)가 진로결정 하위 유형에 대한 연구 결과로 제안한 진로결정 프로파일(CDP)을 가장 유용한 도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로결정, 미결정의 하위 집단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진로결정 지위 모델인 진로결정 프로파일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결론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프로파일의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는 Wanberg와 Muchinsky(1992)의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결정 지위를 유형화하기 위해 진로결정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의 유용성 여부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 유형화에 유용한 진로결정 지위모델(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을 제시한 Jones와 Chenery는 진로 결정 지위를 결정(decidedness; 결정, 미결정의 정도), 편안 수준(comfort level;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편안한가), 이유(reasons; 미결정에 대한 이유)란 세 가지 차원에 따라서 묘사했다. Jones와 Chenery는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진로결정 척도(VDS: Vocational Decision Scale)를 개발했다. 후에 VDS는 '진로결정

프로파일(Career Decision Profile; CDP, Jones, 1989)로 개정되었다.

진로결정 유형화에서 진로결정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개인들을 결정한-편안한, 결정한-불편한, 결정하지 않은-편안한, 결정하지 않은-불편한이란 네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형태의 분류에서는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개인은 불편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CDP는 미결정 상태를 네 가지 이유, 자기 명료화의 부족(자신의 장점, 약점, 흥미, 성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미결정), 직업에 대한 지식의 부족(직업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미결정), 결단성 부족(일반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음에 기인하는 미결정), 진로 선택의 중요성('어느 한 직업을 선택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 목적에 있어서 중요한가?' 혹은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다(Jones & Chenery, 1980).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유형화에 있어서 진로 미결정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이해성, 홍혜경, 1998; Callanan & Greenhaus, 1992; Jones, 1989; Jones & Chenery, 1980; Newman, Fuqua, & Minger, 1990; Savickas & Jarjoura, 1991; Wanberg & Muchinsky, 1992)의 결과에 따라 유형화의 대상을 진로 미결정자와 결정자 모두를 포함했다. 실제 진로상담의 장면에서는 진로 미결정자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자의 경우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을 선행연구의 결과(김봉환, 1997; Goodson, 1981; Larson & Heppner, 1988; Walters & Saddlemire, 1979)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불편의 정도에 따라 직업

에 대한 지식, 결단성 부족으로 자기명료화, 직업정보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진로결정 프로파일의 결정, 편안, 이유의 네 가지 하위 요소 16개 문항을 모두 군집분석 하여 진로결정 유형을 추출, 명명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진로결정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요인분석(Shimizu & Vondrack, 1990), 문헌분석(Fuqua & Hartman, 1988; Cohen, Chartrand & Jowdy, 1995), 군집분석(Larson, et al., 1988; Lucas & Epperson, 1988, 1990; Rojewsky, 1994) 등 다양하다. 이 중 군집분석이 개인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차별화하는 분석도구로 알려졌다.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의 목적은 관찰한 많은 수의 사례를 선정된 변수를 이용하여 몇 개의 집단으로 집단화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그 집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이같이 군집분석은 동질적인 개인들의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서 근래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진로결정 유형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군집분석 방법은 군집의 형태와 사용하는 거리유사성의 척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계층적 방법(hierarchical method)은 군집의 형성에 위계가 있어서 일단 한 군집에 속하게 된 사례는 다시 흩어지지 않는다. 즉 계층적 방법 초기에 부적절한 군집이 이루어 졌을 때는 이를 회복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둘째, 비 계층적 (non-hierarchical method) 방법은 계층적인 군집분석 방법보다 군집화 속도가 빨라 군집분석을 하려는 대상이 다수인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군집이 형성된 이후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최적의 군집이 형성될 때까지 사례들의 재 할당이 가능하다. 비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K-

평균 군집분석(K- means clustering)이다. K-평균 군집분석은 계층적 군집분석의 단점을 극복하고 관찰치가 많을 때 주로 이용하며, 변수보다는 대상이나 응답자를 군집화 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층적 방법은 주어진 자료가 어떤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 주된 관심이고 군집의 수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은 모두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배중훈, 2001; 이재창 외, 2001; 이해성, 홍혜경, 1998; 허자영, 1996).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표집 수가 많고 관측 대상을 군집화 하는 데는 K-평균 군집분석(K- means clustering)이 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노형진, 2001). 따라서 진로결정 프로파일의 측정 결과만을 K- 평균 군집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여 진로결정 유형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는 방법의 유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많은 변수와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는 거대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패턴을 이끌어 내 유사그룹을 찾기 위한 시도로, 비 계층적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진로 결정을 유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서로 다른 심리적 변인을 군집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유형의 수나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내어놓았다. 그나마 몇 개 대학의 적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유형을 살펴보고 있어, 전국의 대학생들을 표집 하여 진로결정 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Jones와 Chenery의 진로결정 3차원 모형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결정 지위를 몇 개의 유형으로 군집화 할 수 있으며, 그 유형들이 진로결정 세 차원(결정, 편안, 이유: 자기명료성, 지식, 결단성, 중요성)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03년 3월 1일 기준 전국에 소재한 142개 4년제 일반 대학교 학생 316,795명이었다. 표본 추출 방법은 다중층화추출법(stratified multistage random sampling)으로 전국의 20개 대학을 무작위 추출, 인문·사회와 이공·자연 계열 3, 4학년 학생 1,979명으로부터 수집하여 정리한 1,79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Jones(1980, 1989)가 타당도와 신뢰도를 입증하고, 김남순·배종훈(2000)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변안 표준화한 진로결정 프로파일(Career Decision Profile: CDP)을 요인분석 하여 최종 측정 도구 문항을 확정했다.

요인분석 결과, 제 1요인은 5, 6, 7번, 제 2요인은 11, 12, 13번, 제 3요인은 1, 2번, 제 4요인은 3, 4번, 제 5요인은 8, 9, 10번, 제 6요인은 14, 15, 16번이었다.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제 1요인을 ‘결정’, 제 2요인을 ‘편안’, 제 3요인을 ‘이유-

자기 이해’, 제 4요인을 ‘이유-진로 지식’, 제 5요인을 ‘이유-결단성’, 제 6요인을 ‘이유-진로 중요성’이라고 이름 붙였다. 요인 산정 후 총 분산은 ‘요인 1’이 15.41%, ‘요인 2’를 첨가했을 때 27.49%, ‘요인 3’을 첨가했을 때 39.46%, ‘요인 4’를 첨가했을 때 50.62%, ‘요인 5’를 첨가했을 때 60.58%, ‘요인 6’을 첨가했을 때 합계 70.09%의 설명 변량을 나타내어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검사는 ‘결정’, ‘편안’, ‘이유’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 척도(2문항)는 ‘얼마나 자신이 진로선택을 했다고 지각하는가?’를 측정한다. ‘편안’ 척도(2문항)는 ‘진로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가?’를 측정한다. ‘이유’ 척도는 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역산한다. 즉, ‘자기 명료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개인은 자신의 흥미, 능력, 성격, 다양한 직업에 얼마나 자신이 적합한가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개인임을 보여준다.

군집분석에서는 문항마다 서로 독특한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16개 문항을 모두 변인으

표 1. 진로결정 프로파일(CDP)의 구성과 신뢰도 계수

진로결정프로파일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
	결정	2	1, 2	.87
	편안	2	3, 4	.85
이	자기 이해	4	5, 6, 7	.84
	진로 지식	4	8, 9, 10	.78
유	결단성	4	11, 12, 13	.72
	진로중요성	4	14, 15, 16	.69
진로결정프로파일		16	1~16	.85

로 삼았다. 먼저, ‘결정’과 ‘편안’ 차원에서 유형을 찾아내고, 군집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이유’ 차원에서 군집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1과 같이 이 검사의 요인별 신뢰도 Cronbach α 는 ‘결정’이 .87, ‘편안’이 .85, ‘이유-자기 이해’가 .84, ‘이유-진로지식’이 .78, ‘이유-결단성’이 .72, ‘이유-진로 중요성’이 .69였다.

자료 처리

이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 기술, 해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구 방법은 요인분석, 문항내적 신뢰도(Cronbach α) 산출, K-평균 군집분석,

One-way Anova, Tukey 사후검증이였다.

연구 결과

군집분석

결정, 편안, 이유의 네 차원- 자기명료성, 진로지식, 결단성, 진로 중요성의 16문항에 대한 측정 결과를 K-평균 군집분석으로 피험자들을 몇 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군집 전 단계로 K를 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력은 70.09%였으며, 적정

표 2. 최종 군집 중심

차 원	군 집				
	1	2	3	4	
결 정	문항1	4	3	3	3
	문항2	4	3	2	3
편 안	문항3	3	2	2	2
	문항4	3	2	2	2
이 유	문항5	2	2	1	1
	문항6	2	2	1	1
	문항7	2	2	1	1
	문항8	2	2	1	1
	문항9	3	2	2	2
	문항10	3	2	2	2
	문항11	4	3	2	3
	문항12	3	2	2	2
	문항13	3	2	2	2
	문항14	4	3	3	4
	문항15	4	3	3	4
	문항16	3	3	2	3

군집 수를 네 개로 정하였다.

K-평균 군집분석 결과 나타난 최종 군집 중심 값은 군집 1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고, 군집 3의 점수가 가장 낮다. 군집 2와 4는 비슷한 점수를 보였으나, 군집 2가 문항 5, 6, 7, 8, 군집 4가 문항 14, 15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군집분석에서 나타난 네 유형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임을 증명한다.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 군집 중심간 거리는 군집 1과 3이 4.518로 가장 크게, 군집 2와 4가 2.230으로 가장 적게 벌어졌다(표 3).

진로결정 세 차원 16개 문항에 대한 군집별 분산분석 결과(표 4),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프로파일(CDP)의 모든 문항이 군집분류에 유의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최종 군집 사례는 군집 4가(37.0%) 가장 많았고, 군집 3이(15.1%) 가장 적었다. 군집 1과 군집 2는 각각 21.1%, 26.8%였다. 네 개 군집의 특성을 분석하여 군집의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 군집 분석 결과에 나온 군집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진로결정 세 차원에 대한 각 군집의 특성

피험자를 네 군집으로 나누었을 때 진로결정

프로파일(CDP)의 세 차원의 군집별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산을 하고, 유의하다면 어느 군집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검증을 하였다.

‘결정’ 차원에 따른 각 군집은 문항 1($F=194.71, p < .001$), 문항 2($F=263.83,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군집은 진로결정 차원 ‘결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항 1, 2에서 군집 1($M=3.77, M=3.58$), 군집 4($M=3.26, M=2.87$), 군집 2($M=2.98, M=2.64$), 군집 3($M=2.67, M=2.11$)의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집단에서 나타났는지를 살펴 본 결과, 문항 1, 2가 군집 1, 2, 3, 4 모든 쌍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서 ‘결정’ 차원은 모든 군집의 쌍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군집 1이 가장 높고 군집 3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편안’ 차원에 따른 각 군집은 문항 3($F=214.49, p < .001$), 문항 4($F=171.11,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군집은 진로결정 차원 ‘편안’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항 3, 4에서 군집 1($M=2.86, M=2.71$), 군집 2($M=2.22, M=2.21$), 군집 3($M=1.81, M=1.83$), 군집 4($M=1.77, M=1.71$)의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

표 3. 최종 군집 중심간 거리

군집	1	2	3	4
1	-	2.474	4.518	2.857
2	2.474	-	2.685	2.230
3	4.518	2.685	-	2.451
4	2.857	2.230	2.451	-

표 4. 분산분석

차원		군집		오차		F
		평균제곱	자유도	평균제곱	자유도	
결정	문항1	75.053	3	.385	1794	194.71***
	문항2	123.582	3	.468	1794	263.830***
편안	문항3	106.992	3	.499	1794	214.496***
	문항4	88.764	3	.519	1794	171.119***
이유	문항5	109.211	3	.364	1794	300.035***
	문항6	105.732	3	.422	1794	250.254***
	문항7	107.519	3	.379	1794	283.676***
	문항8	58.392	3	.340	1794	171.761***
	문항9	71.738	3	.406	1794	176.719***
	문항10	98.300	3	.434	1794	226.741***
	문항11	168.787	3	.499	1794	337.953***
	문항12	126.692	3	.440	1794	287.977***
	문항13	70.346	3	.374	1794	188.038***
	문항14	101.991	3	.518	1794	197.005***
	문항15	105.174	3	.446	1794	236.067***
	문항16	134.139	3	.485	1794	276.810***

*** $p < .001$

표 5. 결정 차원에 따른 각 군집 간의 차이 검증

차원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Tukey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결정	문항1	군집1	379	3.77	.45	194.71***	-	*	*	*
	문항1	군집2	481	2.98	.61		-	*	*	
	문항1	군집3	273	2.67	.78		-	*		
	문항1	군집4	665	3.26	.64		-			
편안	문항2	군집1	379	3.58	.55	263.83***	-	*	*	*
	문항2	군집2	481	2.64	.65		-	*	*	
	문항2	군집3	273	2.11	.86		-	*		
	문항2	군집4	665	2.87	.70		-			

*** $p < .001$

표 6. 편안 차원에 따른 각 군집 간의 차이 검증

차원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Tukey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편안	문항3	군집1	379	2.86	.79	214.49***	-	*	*	*
		군집2	481	2.22	.67		-	*	*	
		군집3	273	1.81	.81		-			
		군집4	665	1.77	.63				-	
	문항4	군집1	379	2.71	.78	171.11***	-	*	*	*
		군집2	481	2.21	.65		-	*	*	
		군집3	273	1.83	.86		-	*	*	
		군집4	665	1.71	.82				-	

*** $p < .001$

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집단에서 나타났는지 살펴 본 결과, 문항 3, 4 모두 군집 1과 군집 2, 3, 4, 군집 2와 군집 3, 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이유-자기 이해' 차원에 따른 각 군집 간의 차이 검증

차원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Tukey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이유 (자기 이해)	문항5	군집1	379	2.11	.85	300.03***	-		*	*
		군집2	481	2.10	.62		-	*	*	
		군집3	273	1.22	.46		-			
		군집4	665	1.26	.45				-	
문항6	군집1	379	2.22	.89	1250.25***	-	*	*	*	
	군집2	481	2.07	.66		-	*	*		
	군집3	273	1.26	.49		-				
	군집4	665	1.35	.52				-		
문항7	군집1	379	2.25	.80	283.67***	-	*	*	*	
	군집2	481	1.85	.64		-	*	*		
	군집3	273	1.22	.50		-				
	군집4	665	1.29	.51				-		

*** $p < .001$

이와 같은 표 6의 결과에서 ‘편안’ 차원은 군집 3과 4를 제외한 기타 군집의 쌍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진로결정에 대해 군집 1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고, 군집 4가 가장 불편해 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유- 자기 이해’ 차원에 따른 각 군집 간의 차이 검증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각 군집은 문항 5($F= 300.03, p < .001$), 문항 6($F= 1250.25, p < .001$), 문항 7($F= 283.67,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각 군집은 진로결정 차원 ‘이유- 자기 이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항 5는 군집 1($M= 2.11$), 군집 2($M= 2.10$), 군집 4($M= 1.26$), 군집 3($M= 1.22$), 문항 6, 7은 군집 1($M= 2.22, M= 2.25$), 군집 2($M= 2.07, M= 1.85$), 군집 4($M= 1.35, M= 1.29$), 군집

3($M= 1.26, M= 1.22$)의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집단에서 나타났는지를 살펴 본 결과, 문항 5, 6, 7은 군집 3과 4를 제외한 군집 1과 군집 2, 3, 4, 군집 2와 군집 3, 4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유-자기 이해’ 차원은 ‘자기 이해’ 수준이 비슷한 군집 3과 4를 제외한 기타 군집의 쌍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군집 1은 ‘나의 성격에 꼭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군집 2는 ‘나의 흥미, 능력을 잘 알고 있다’는 집단이다.

‘이유- 진로 지식’ 차원에 따른 각 군집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표 8), 문항 8($F= 171.76, p < .001$), 문항 9($F= 176.71, p < .001$), 문항 10($F= 226.74,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각 군집은 ‘이유- 진로 지식’에 따라 서로

표 8. ‘이유-진로 지식’ 차원에 따른 각 군집 간의 차이 검증

차원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Tukey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문항8	군집1	379	2.09	.74	171.76***	-	*	*	*
	군집2	481	1.68	.60		-	*	*	
	군집3	273	1.37	.53		-	*	*	
	군집4	665	1.35	.49		-	*	*	
이유 (진로 지식)	군집1	379	2.75	.74	176.71***	-	*	*	*
	군집2	481	2.39	.61		-	*	*	
	군집3	273	1.68	.63		-	*	*	
	군집4	665	2.06	.60		-	*	*	
문항10	군집1	379	3.03	.65	226.74***	-	*	*	*
	군집2	481	2.39	.61		-	*	*	
	군집3	273	1.72	.70		-	*	*	
	군집4	665	2.23	.67		-	*	*	

*** $p < .001$

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항 8은 군집 1(M= 2.09), 군집 2(M= 1.68), 군집 3(M= 1.37), 군집 4(M= 1.35), 문항 9, 10은 군집 1(M= 2.75, M= 3.03), 군집 2(M= 2.39, M= 2.39), 군집 4(M= 2.06, M= 2.23), 군집 3(M= 1.68, M= 1.72)의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어떠한 집단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살펴 본 결과, 문항 8, 9, 10 모두 군집 3과 4를 제외한 군집 1과 군집 2, 3, 4, 군집 2와 군집 3, 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서 ‘이유-진로 지식’ 차원은 군집 3과 4를 제외한 기타 군집의 쌍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군집 2, 3은 진로 관련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음에 비해, 군집 3, 4는 적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유-결단성’ 차원에 따른 각 군집은 문항 11(F= 337.95, $p < .001$), 문항 12(F= 287.97, $p < .001$), 문항 13(F= 188.04,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각 군집은 진로결정 차원 ‘이유-결단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항 11은 군집 1(M= 3.70), 4(M= 3.19), 2(M= 2.93), 3(M= 1.96), 문항 12, 13은 군집 1(M= 3.29, M= 2.78), 2(M= 2.49, M= 2.21), 4(M= 2.37, M= 2.05), 3(M= 1.81, M= 1.69)의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집단에서 나타났는지를 살펴 본 결과, 문항 11, 12, 13 모두 군집 1과 군집 2, 3, 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표 9)는 ‘이유-결단성’은 모든 군집의 쌍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군집 1은 결

표 9. ‘이유-결단성’에 따른 각 군집 간의 차이 검증

차원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Tukey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이유 (결단성)	문항11	군집1	379	3.70	.54	-	*	*	*
		군집2	481	2.93	.71	-	-	*	*
		군집3	273	1.96	.78	-	-	-	*
		군집4	665	3.19	.76	-	-	-	-
이유 (결단성)	문항12	군집1	379	3.29	.63	-	*	*	*
		군집2	481	2.49	.63	-	-	*	*
		군집3	273	1.81	.68	-	-	-	*
		군집4	665	2.37	.70	-	-	-	-
이유 (결단성)	문항13	군집1	379	2.78	.69	-	*	*	*
		군집2	481	2.21	.57	-	-	*	*
		군집3	273	1.69	.63	-	-	-	*
		군집4	665	2.05	.58	-	-	-	-

*** $p < .001$

표 10. '이유- 진로 중요성'에 따른 각 군집 간의 차이 검증

차원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Tukey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이유 (진로 중요성)	문항14	군집1	379	3.52	.74	197.05***	-	*	*	*
		군집2	481	3.01	.77		-	*	*	
		군집3	273	2.71	.53		-	*		
		군집4	665	3.79	.46		-			
이유 (진로 중요성)	문항15	군집1	379	3.55	.63	236.07***	-	*	*	*
		군집2	481	2.85	.67		-	*	*	
		군집3	273	2.63	.94		-			
		군집4	665	3.64	.54		-			
이유 (진로 중요성)	문항16	군집1	379	3.49	.61	276.81***	-	*	*	*
		군집2	481	2.62	.67		-	*	*	
		군집3	273	1.93	.70		-	*		
		군집4	665	2.64	.76		-			

*** $p < .001$

단이 잘 되어 있는 집단인 반면 군집 3은 우유 부단한 집단임을 나타낸다.

'이유- 진로 중요성' 차원에 따른 군집의 차이는 표 10과 같다. '이유- 진로 중요성'에 따라 각 군집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문항 14($F= 197.05, p < .001$), 문항 15($F= 236.07, p < .001$), 16($F= 276.81,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각 군집은 '이유- 진로 중요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항 14, 15는 군집 4($M= 3.79, M= 3.64$), 1($M= 3.52, M= 3.55$), 2($M= 3.01, M= 2.85$), 3($M= 2.71, M= 2.85$), 문항 16은 군집 1($M= 3.49$), 4($M= 2.64$), 2($M= 2.62$), 3($M= 1.93$)의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집단에서 나타났는지를 살펴본 결과, 문항 14는 군집 1과 군집 2, 3, 4, 군집 2와 군집 3,

4, 군집 3과 군집 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문항 15는 군집 1과 군집 2, 3, 군집 2와 군집 3, 4, 군집 3과 군집 4에서, 그리고 문항 16은 군집 1과 군집 2, 3, 4, 군집 2와 군집 3, 군집 3과 군집 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유-진로 중요성'은 문항 14에서 모든 군집의 쌍이, 문항 15에서 군집 1과 군집 4를 제외한 기타 군집의 쌍이, 문항 16에서 군집 2와 군집 4를 제외한 기타 군집의 쌍이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군집 4가 진로 중요성을 깊이, 군집 3은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집 명명

결정, 편안, 이유의 세 차원에서 군집의 특성

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 먼저 결정, 편안 차원에서 각 군집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결정, 편안의 여부는 원 점수로써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제시한 표 5와 표 6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5와 표 6에 나타난 결정, 편안의 차원은 각각 2개의 문항(결정: 문항1, 2, 편안: 문항 3, 4)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문항의 평균 합 점수 5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결정, 편안, 그 이하는 미결정, 불편으로 판정하였다. 이런 기준에 따라 결정 차원을 보면 군집 3은 평균 합 점수가 5점 미만($M=4.78$)이므로 진로 미결정으로, 군집 1, 군집 2, 군집 4는 평균 합점수가 5점 이상(군집 1은 $M=7.35$, 군집 2는 $M=5.62$, 군집 4는 $M=6.13$)이므로 진로 결정으로 판정할 수 있다.

편안의 차원을 보면 군집 1($M=5.57$)을 제외한 군집 2($M=4.43$), 3($M=3.64$), 4($M=3.48$)가 5점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집 1은 자신의 진로 결정 상태를 편안하게 느끼나, 군집 2, 3, 4는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고 판정할 수 있다. 이런 분석 과정을 통해, 군집 1은 '결정-편안', 군집 2, 4는 '결정-불편', 군집 3은 '미결정-불편'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표 7에서 표 10에 나와 있는 이유 차원에서 '결정-편안' 집단인 군집 1, '결정-불편' 집단인 군집 2, 4, '미결정-불편' 집단인 군집 3의 특성을 보기 위해 군집별로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인 문항을 뽑아서 표 11에 제시하였다. 이들 문항의 내용은 미결정과 불편의 원인을 해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결정-편안' 유형인 군집 1은 모든 문항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이 유형의 대학생은 진로결정이 확고하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한 상태이다. 문항 5, 6, 7, 8에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그 수치가 불안을 동반할 정도로 높지는 않았다. 이런 결과는, 이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자기의 진로를 결정했으며(문항 1, 2), 그 결정에 대하여 매우 편하고 만족스러워(문항 3, 4) 하면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문항 8, 9)하려는 욕구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전체 요인에서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특성을 보인 군집 1을 '결정-이상형'이라 이름을 붙였다.

군집 2는 '결정-불편' 집단에 속했는데, 이유 차원에서 이 유형은 네 군집 가운데 '나의 능력, 흥미, 강점, 약점', '내가 받고 싶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가 고려하고 있는 직업'을 잘 이해하고(문항 5, 6, 7, 8, 9, 10), 결단력(문항 12, 13)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선택, 진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문항 14, 15, 16)에 대한 점수가 진로를 결정한 세 유형 가운데 가장 낮았다. 또한 이들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 진로를 결정해 주길'(문항 11) 바라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나 그 수준은 깊지 못하며, 자기 장래 진로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특성에 따라 군집 2는 '결정-회피형'이라 이름을 붙였다.

군집 3은 네 군집 가운데 유일하게 '미결정'으로 판정된 집단으로 자신의 진로 결정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불편을 나타냈다. 이유 차원에서 군집 3은 직업, 진로의 중요성, 직업 선택의 필요성(문항 14, 15)에 대한 점수가 다른 문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군집 3 집단 역시 다른 집단 못잖게 진로결정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 본 경험이 부족한 만성적인 우유부단(문항 11, 12, 13), 자신의 성격 흥미 능력

표 11. 진로결정 세 차원에 있어서 네 군집의 특성

결정/편안	군집	이유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점수 문항
결정-편안	1	모든 문항이 네 군집 가운데 가장 높으나 상대적으로 문항 5(2.11), 6(2.22), 7(2.25), 8(2.09)이 낮음
결정-불편	2	군집 4에 비해 문항 5(2.10), 6(2.07), 7(1.85), 8(1.68), 9(2.39), 10(2.39), 12(2.49), 13(3.01)이 높음
	4	군집 2에 비해 문항 11(3.19), 14(2.71), 15(2.63), 16(2.64)이 높음
미결정-불편	3	모든 문항이 네 군집 가운데 가장 낮으나 상대적으로 문항 14(3.79), 15(3.64)가 높음

()안은 평균

에 대한 이해 부족(문항 5, 6, 7),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의 극단적인 부족(문항 8, 9, 10)으로 혼돈 속에서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군집 3의 경향에 따라 이들 집단을 ‘미결정-혼돈형’이라 이름을 붙였다.

군집 4는 군집 2와 마찬가지로 ‘결정-불편’ 집단에 속했지만,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해서 네 개의 군집 가운데 가장 편안 점수(문항 3, 4)가 낮았다. 군집 4는 이유 차원에서 문항 11, 14, 15, 16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들 문항의 내용을 놓고 볼 때 군집 4는 진로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진로결정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고 ‘나의 진로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잘 아는 진로결정 독립성도 있으나 자신의 성격, 흥미, 능력, 다양한 직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결단력(문항 5, 6, 7, 8, 9, 10, 12, 13)이 없어 오히려 그 욕구나 독립성이 심리적 불안을 초래, 조급하게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이런 조급한 진로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에 기초하여 군집 4는 ‘결정-강박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은 ‘결정-강박형’(37.0%), ‘결정-회피형’(26.8%), ‘결정-이상형’(21.1%), 미결정 혼돈형(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의 대다수 대학생은 진로를 결정하고 있으나, 그 결정에 대해 매우 불편해하며, 높은 불안, 강박을 갖고 있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진로지도, 진로상담, 진로정보를 갖기를 원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이런 욕구를 충족하는 ‘진로상담’, ‘직업의 세계’ 등과 같은 주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규교과를 교육과정에 개설하고, 그 교과의 내용, 교수방법, 활용과 관련한 프로그램, 그리고 개인·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여야 한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는 달리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을 K-평균군집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지위가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유형화를 연구한 선행 연구 대다수가 이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네 개에서 여섯 개의 유형을 보고하고 있

는데, 이런 차이는 군집분석의 변인으로 진로결정 프로파일(CDP) 단일 척도만을 채택한 이 연구와는 달리 유형화를 위해 서로 다른 변인 및 측정 도구들을 군집분석에 포함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각 유형은 진로결정 프로파일을 이루는 '결정', '편안', '이유'란 세 차원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상형', '결정-강박형', '미결정-혼돈형', '결정-강박형'이라 이름 붙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은 '결정-강박형'(37.0%), '결정-회피형'(26.8%), '결정-이상형'(21.1%), '미결정-혼돈형'(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정-이상형'은 가장 안정된 집단으로 비교적 확고하게 진로를 결정한 유형이다. 이 유형의 대학생은 진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분명하고, 자기의 결정에 대해 편안한 상태이다. 이 유형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진로가 무엇이지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인다. 이 유형은 Jones와 Chenery(1980)의 '결정-편안', Savickas와 Jarjoura(1991)의 '결정집단', Wanberg와 Muchinsky(1992)의 '결정-자신', 허자영(1996)의 '결정-확신이 있는', 이해성, 홍혜경(1998)의 '안정결정형', 이재창, 박미진, 최인화(2002)의 '결정-확신'에 속한다.

'결정-회피형'은 진로를 결정했으나 그 결정이 불편한 집단이다. 이 유형은 자기의 능력, 흥미, 강점, 약점을 잘 이해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가 고려하고 있는 직업을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선택, 진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 진로를 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 유형은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나 그 수준은 깊지 않으며, 자기 장래 진로 문제를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

다. 소위 신세대- X세대, W세대가 지닌 특성으로 보이는 이 유형에 대한 지속적, 심층적인 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이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재창, 박미진, 최인화(2002)의 '결정-혼란'이 그나마 유사한 유형이다.

'미결정-혼돈형'은 네 유형 가운데 유일하게 '미결정'으로 판정된 집단으로 자신의 진로 결정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불편을 나타낸다. 특이한 것은, 이 유형 역시 직업, 진로의 중요성, 직업선택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어느 유형 못지않게 진로결정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 본 경험이 부족한 만성적인 우울 부담, 자신의 성격 흥미 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의 극단적인 부족으로 혼돈 속에서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이며 많은 도움, 즉 진로상담, 심리치료가 필요한 유형이다. '미결정-혼돈형'은 Jones와 Chenery(1980)의 '미결정-불편', Savickas와 Jarjoura(1991)의 '정교화 집단', '비현실적 유형', '결단성 부족', Wanberg와 Muchinsky(1992)의 '무결정-무관심', '미결정-불안', 허자영(1996)의 '미결정-정보필요', '미결정-무관심', '미결정-불안정', 이해성, 홍혜경(1998)의 '혼돈미결정형', 이재창, 박미진, 최인화(2002)의 '미결정-불안정', '미결정-역기능 사고'에 속한다. 여기에는 진로 미결정자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Rojewsky, 1994; Brown & Brooks, 1996; 배중훈, 2001)를 비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들 연구에서 나온 4 ~ 7 가지 유형은 모두 이 연구의 결과인 '미결정-혼돈형'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는 달리 '결정' 차원에서 '결정 유형' 이 세 집단으로 나온 데 반해 '미결정 유형'은 하나의 집단밖에 밖

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연구의 표본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진로결정이 확고한 대학교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대학생들이 처한 가장 많은 유형인 ‘결정-강박형’은 진로를 결정했지만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해서 가장 불편해한다. 이 유형은 진로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진로결정에 대한 강한 욕구, 진로결정 독립성이 있으나 자신의 성격, 흥미, 능력, 다양한 직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결단력이 없어 오히려 그 욕구와 독립성이 심리적 불안을 초래, 조금하게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이런 조금한 진로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Jones와 Chenery(1980)의 ‘결정-불편’, Savickas와 Jarjoura(1991)의 ‘지속적 탐색 집단’, Wanberg와 Muchinsky(1992)의 ‘결정-염려’, 이해성, 홍혜경(1998)의 ‘불안결정형’, ‘수행불안형’, 이재창, 박미진, 최인화(2002)의 ‘결정-불안정’에 속한다.

연구 결과 나타난 네 개의 유형은 진로 결정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진로상담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결정-이상형’은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도록 하는 데 상담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흥미, 적성검사 등으로 자기가 선택한 진로를 객관적으로 확인, 검증하게 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결정-회피형’은 직업에 대한 태도, 진로의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후, 직업과 더불어 생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 자신의 흥미, 성격, 가치관을 다각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미결정-혼돈형’은 보다 심층적인 진로상담이 필요하다. 진로결정 수준이 낮은 것을 고려,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태도, 흥미, 가치관, 적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다양한 진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기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상담, 심리치료를 받게 한다.

‘결정-강박형’은 직업에 대한 태도, 진로 결정, 자신의 내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하여 그 결정이 자신에게 적절한 경우 그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진로 준비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계획을 세우게 한다. 또한 진로와 관련한 불안, 강박의 원인을 이해하고 걱정 수준으로 낮추는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돕는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진로결정 유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적 변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 변인으로는 성, 대학 소재지, 전공계열, 학년, 아르바이트 경험, 전공만족,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족 응집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리적 변인으로는 그동안 별로 연구되어지지 않은 인지 변인,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자아효능감, 진로의사결정 귀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표집을 인문·사회와 이공·자연 계열 3, 4학년으로 하였으나, 전 학년, 전 계열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군집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표집을 달리 한 연구 결과를 놓고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 밝힌 진로결정 네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상담, 교육, 집단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남순, 배중훈 (2000). 진로결정검사(CDP)의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4(3), 83-98.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2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노형진 (2001). 한글 SPSS 10.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서울: 형설출판사.
- 배중훈 (2001). 진로미결정 유형별 진로결정요인과 성격특성의 차이.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25-146.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역기능적 진로사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01-414.
- 이혜성, 홍혜경 (1998). 진로결정상태 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 상태의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43-166.
- 허자영 (1996). 대학생 진로유형에 관한 연구. 미간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rown, S. D., & Brooks, L. (1996). *Career counseling techniques*. Boston: Allyn & Bacon.
- Callanan, G. A., & Greenhaus, J. H (1992). The career indecis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s: An examination of multiple subtyp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212-231.
- Cohen, C. R., Chartrand, J. M., & Jowdy, D. P. (1995).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Subtypes and Ego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0-447.
- Fuqua, D. R., Blum, C. R., & Hartman, B. W. (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65-373.
- Fuqua, D. R., Newman, J. L., & Seaworth, T. B. (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154-158.
- Goodson, W. D. (1981). Do career development needs exist for all students entering colleges or just the undecided major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2, 413-417.
- Gordon, V. N. (1998). *The Undecided College Student*. (2nd ed.). Illinois: Thomas Books.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Jones, L. K., & Chenery, M. F. (1980). Multiple subtypes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college student: A Model and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469-477.
- Jones, L. K. (1989). Measuring a three-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A revi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 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477-486.
- Larson, L. M., Heppner, P. P., Ham, T., & Dugan, K. (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4), 439-446.
- Lucas, M. S., & Epperson, D. L. (1988). Personality

- types in vocationally undecided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29, 460-466.
- Lucas, M. S. (1993). A validation of types of career indecision at a counseling ce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40-446.
- Newman, J. L., Fuqua, D. R., & Minger, C. (1990). Further evidence for the use of career subtypes in defining career statu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178-188.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 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43.
- Rojewski, J. W. (1994). Career indecision types for rural adolescents from disadvantaged and non disadvantaged background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356-363.
- Savickas, M. L., & Jarjoura, D. (1991). The Career Decision Scale as a type indicat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85-90.
- Shimizu, K., Vondracek, F. W., Schulenberg, J. E., & Hostetler, M. (1990). The factor structure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Similarities across selected stud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213-225.
- Wanberg, C. R., & Muchinsky, P.M.(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1, 71-80.
- Walters, L., & Saddlemire, G.(1979). Career planning needs of college freshmen and their perceptions of career plann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0, 224-229.

원고접수일 : 2004. 6. 6

수정원고접수일 : 2004. 7. 19

게재결정일 : 2004. 8. 3

An Analysis of Typ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Sun-Chul Jang

KonK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ypes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To address this purpose, individuals from universities in Korea participated in a cluster analysis study.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is 316,795 students of 142 universities located in Korea as of March 1st, 2003. Juniors and seniors from 20 universities were through Stratified Multistage Random Sampling. Participants who are selected are 1,798 in all. They completed 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nes, et al., 1980, 1989). Three of the sub scales in Career Decision Profile were used in the K-means clustering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cluster solution identified in this study supports the existence of four decision types. By being interpreted, they are characterized as : Cluster 1 "Decision - Ideal"; Cluster 2 "Decision - Avoidance" ; Cluster 3 "Indecision - Confusion"; Cluster 4 "Decision - Obsession". Most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make their choices among so various occupations, but they are not always satisfied with their decisions. As a result, they think they make up their mind to do a job which they don't want. They want to quit their career if it is possible. To make a career decision at large, to evaluate themselves, and have a professional career counseling, they want to have the information on career. This study shows reasonable promise of giving variety to types of career decision.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career counseling could challenge to diversify forms for counseling depending on types of clients.

Key Words : Career decision, K-means clustering analysis, Career Decision Profile